

국 어

▶총평

이번 시험은 어휘 4문제, 어법과 문법 4문제, 화법 2문제, 비문학 6문제, 문학 4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문학 유형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요즘의 경향을 잘 보여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은 지문의 길이가 짧다보니 짧은 지문 안에서도 분석이 가능한, 표현법이나 대화의 의도와 같은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문이 짧다보니 선지로 구성할 내용들도 정해져 있어서, 선지를 읽으며 그것의 적절성을 지문에서 찾기는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어법과 문법 연습을 소홀히 하지 않되, 비문학을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비문학은 단락별로 끊어 읽으면서 중심 내용을 찾는 것, 접속어를 바탕으로 글의 흐름을 짐작하며 읽는 것 등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이루고 있다.

① 성공(成功): 실패(失敗) ② 시상(施賞): 수상(受賞)

③ 판매(販賣): 구매(購買) ④ 공격(攻擊): 방어(防禦)

▶해설

①은 의미상 대립을 이루는 반의어이다. (②, ③, ④는 모두 방향성이 나타나 는 반의어이다.)

문 2. 토론에서 사회자가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론을 시작하면서 논제가 타당한지 토론자들의 의견을 묻는다.
- ② 토론자들에게 토론의 전반적인 방향과 유의점에 대해 안내한다.
- ③ 청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쟁점을 약화시킨다.
- ④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비판하는 견해를 개진하여 논쟁의 확산을 꾀한다.

▶해설

①논제의 타당성은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입증되어야 한다.

②토론자들에게 토론이 흘러가야 하는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유의점을 안내 한다.

③청중의 의견이 토론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쟁점을 강화시키는 방 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④사회자는 자신의 견해를 말하지 않는다.

문 3. 다음 글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멕시코의 환경 운동가로 유명한 가브리엘 과드리스는 1960년대 이후 중앙아메리카 숲의 25% 이상이 목초지 조성을 위해 벌채되었 으며 1970년대 말에는 중앙아메리카 전체 농토의 2/3가 축산 단 지로 점유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87년 이후로도 멕시코에 만 1,497만 3,900 ha의 열대 우림이 파괴되었는데, 이렇게 중앙아 메리카의 열대림을 희생하면서까지 생산된 소고기는 주로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그렇지만 이 소고기들은 지방분이 적고 미 국인의 입맛에 그다지 맞지 않아 대부분 햄버거의 재료로 사용 되었다.

- ①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이론적 근거를 나열하여 주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전문 용어의 뜻을 쉽게 풀이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나열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해설

①25%, 2/3 등의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어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문 4.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이 가곡의 노래말은 아름답다.
- ② 그 집의 순대국은 아주 맛있다.
- ③ 하교길은 늘 아이들로 북적인다.
- ④ 선생님은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다.

▶해설

①노랫말[노랜말], ②순댓국[순댄국/순대국], ③하곶길[하곶길/하교길] -모두 사이시옷을 써야 하는 환경의 단어들이다.

④인사말[인사말] - 사이시옷을 써야 하는 환경이 아니다.

문 5. (가)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반영론은 문학 작품이 사회를 반영하여 현실의 문제를 비판 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는 관점을 취한 비평 적 입장이다.

(나)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박목월, 「나그네」 -

- ① 전통적 민요의 율격을 바탕으로 한 정형적 형식을 통해 정제된 시상 이 효과적으로 드러났군.
- ②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 채 유희자적인 삶만을 그린 것은 아닌지 비판할 여지가 있군.
- ③ 낭만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시적 분위기가 시조에서 보이는 선경 후정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군.
- ④ 해질 무렵 강가를 거닐며 조망한 풍경의 이미지가 한 폭의 그림 을 보는 듯한 감각을 자아내는군.

▶해설

①율격에 대한 감상은 내재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이다.

②당시 사회 분위기는 상당히 고통스러웠는데, 이를 무시하고 유희자적인 삶 만을 시에 담은 것은 비판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반영론적 관점이다.

③선경후정 구성에 대한 감상은 절대론적 관점이다.

④시에 나타난 감각적인 부분(심상)에 대한 감상은 절대론적 관점이다.

문 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은 벗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반가운 벗입니다. 배움과 벗에 관한 이야기는 『논어』의 첫 구절에도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수험 공부로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게 독서는 결코 반가운 벗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고 싶은 불행한 만남일 뿐입니다. 밑줄 그어 암기해야 하는 독서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못 됩니다.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삼독(三讀)입니다. 먼저 글을 읽고 다음으로 그 글을 집필한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그 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필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발 딛고 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합니다.

- ① 독서는 타인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자기화(自己化)하는 과정이다.
- ② 반가운 벗과의 독어야말로 진정한 독자로 거듭날 수 있는 첩경(捷徑)이다.
- ③ 시대와 불화(不和)한 독자일수록 독서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기 쉽다.
- ④ 자신이 배운 것을 제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우(交友) 관계가 중요하다.

▶해설

①글을 읽고 필자를 읽고,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한다는 말은 다른 이의 생각을 자기화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②독서를 반가운 벗에 비유했을 뿐이지, 반가운 벗과의 독서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③시대와 화합할 수 없는 독자로 한정하여 말하지 않았다.

④친밀한 교우 관계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

문 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 중에 깨끗한 옷만 골라 입으세요.
- ② 어제는 밤이 늦도록 옛 책을 뒤적였다.
- ③ 시간 날 때 낚시나 한 번 같이 갑시다.
- ④ 사람들은 황급히 굴 속으로 모여들었다.

▶해설

①‘그중’(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②‘옛∨책’(관형사+명사)은 두 단어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③‘한번’(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④‘굴속’(굴의 안)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문 8.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 |
|------------|------------|
| ㉠ 가을일[가을릴] | ㉡ 텃마당[텃마당] |
| ㉢ 입학생[이팍쌩] | ㉣ 흙먼지[흥먼지] |

- ① ㉠: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② ㉡: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 ③ ㉢: 음운 변동 전의 음운 개수와 음운 변동 후의 음운 개수가 서로 다르다.
- ④ ㉣: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규칙이 적용된다.

▶해설

①‘가을일’ → [가을+닐](ㄴ첨가) → [가을릴] (유음화)

②‘텃마당’ [텃마당] - 뒤 음절 ㅁ의 영향으로 앞 음절 받침 ㄷ이 ㄴ으로 바뀌면서 조음 방식이 바뀜 (비음화)

③‘입학생’ → [이팍쌩](자음 축약) → [이팍쌩] (경음화)
-음운의 개수는 8개에서 7개로 한 개 줄어듦

④‘흙먼지’ → [흑먼지](자음군 단순화) → [흥먼지] (비음화)

- 문 9.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접수되었을 때에는’은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된 상황을 나타내므로 ‘접수될 때에는’으로 바꾼다.
 - ②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 ‘과업 지시서 교부’와 서술어 ‘교부하다’는 의미상 중복되며 호응하지 않으므로 앞의 ‘교부’를 삭제한다.
 - ③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목적어 ‘수역을’과 서술어 ‘제외되다’는 호응하지 않으므로 ‘제외된’은 ‘제외한’으로 바꾼다.
 - ④ 관련 도서는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 서술어 ‘열람하다’는 부사어 ‘관계자에게’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열람하게 한다.’와 같이 바꾼다.

▶해설

①‘제안이’와의 호응관계를 고려하여 ‘접수되다’를 쓰고, ‘접수된 것이’와의 호응관계를 고려하여 ‘우선한다’를 쓴다.

문 10.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못 뵈
고인(古人)을 못 뵈도 녀던 길 알피 잇너
녀던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나) 술은 어이흐야 도흐니 누룩 섯글 타시러라
국은 어이흐야 도흐니 염매(鹽梅) 툷 타시러라
이 음식 이 뜯을 알면 만수무강(萬壽無疆)호리라

(다) 우레궂치 소르나는 님을 번기궂치 번뜻 만나
비궂치 오락가락 구름궂치 헤어지니
흉중(胸中)에 브롬궂튼 혼숨이 안기 피듯 호여라

(라) 하하 허허 혼들 내 우음이 정 우음이
하 어척 업서서 늦기다가 그리 되게
벗님니 웃디들 말구려 아귀 뵈여디리라

- ① (가): 연쇄법을 활용하여 고인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 문답법과 대조법을 활용하여 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 ③ (다): ‘궂치’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운율감을 더하고 있다.
- ④ (라): 냉소적 어조를 통해 상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해설

①초장의 뒤 구절과 중장의 앞 구절, 중장의 뒤 구절과 종장의 앞 구절이 유사하게 연결되어 있다.

②술과 국이 왜 좋은지 질문한 후,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대조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술과 국은 둘다 좋은 것이다)

③‘궂치(같이)’의 반복이 나타난다.

④자신의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벗님네들에게도 웃지 말라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문 11.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맞게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의미	문장
살다	경기나 놀이에서, 상대방에게 잡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나다.	㉢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 ① ㉠: 장기에서 포는 죽고 차만 살아 있다.
- ② ㉡: 그는 벼슬을 살기 싫어 속세를 버렸다.
- ③ ㉢: 옷에 풀기가 아직 살아 있다.
- ④ ㉣: 그렇게 세계 부딪혔는데도 시계가 살아 있다.

▶해설

③‘옷에 풀기가 아직 살아 있다.’의 ‘살다’는 ‘성질이나 기운 따위가 뚜렷이 나타난다.’의 뜻이다.

문 12.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해 홍○○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홍 교수: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홍 교수: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게 유도하여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가요?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홍 교수: 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2014년에는 9.0%였으나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전체 운전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홍 교수: 네,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차량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고 해도 무작정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만 할 수는 없을 테고, 뭔가 보완책이 있나요?(㉢)

홍 교수: 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취지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나요?(㉣)

홍 교수: 일회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아, 운전면허를 반납한 당시에만 교통비가 한 차례 지원된다는 말씀이군요.

홍 교수: 네. 이분들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이 제도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할 듯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①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짓는다.
- ② 상대방이 인용한 통계 자료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제시한다.
- ③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 ④ 상대방에게 해당 제도의 시행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한다.

▶해설

①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문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명백히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를 취했다. 그들은 인간의 위치를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려고 애썼다. 역사의 법칙이란 것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다른 한편, 그들은 진보를 믿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던가? 헤겔은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뚜렷이 구분했다. 반면,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정리한 듯했다. 자연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진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의 원천인 생물학적인 유전(biological inheritance)을 역사에서의 진보의 원천인 사회적인 획득(social acquisition)과 혼동함으로써 훨씬 더 심각한 오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오늘날 그 둘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것이다.

- ① 자연의 진보에 대한 증거
- ② 인간 유전의 사회적 의미
- ③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 ④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

▶해설

④이전 학자들(헤겔, 다윈)이 진보와 진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나타내었는지 제시한 후, 마지막 부분에서 이 둘의 구분이 오늘날에는 익히 알려진 것이라고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 소사가 말하기를, “신부(新婦)가 이제 내 집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남편을 도울꼬?”

사씨 대답하여 말하기를, “첩(妾)이 일찍 아비를 여의고 자모(慈母)의 사랑을 입사와 본래 배운 것이 없으니(㉠)물으시는 말씀에 대답치 못하옵거니와 어미 첩을 보낼 제 중문(中門)에 임(臨)하여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공경(恭敬)하며 반드시 경계(警戒)하여 남편을 어기오지 말라.’(㉡)하시니 이 말씀이兢兢(耿耿)하여 귓가에 있나이다.”

유 소사가 말하기를, “남편의 뜻을 어기오지 말면 장부(丈夫) 비록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순종(順從)하라?”

사씨 대 왈, “그런 말이 아니오라 부부(夫婦)의 도(道) 오륜(五倫)을 겸(兼)하였으니 아비에게 간(諫)하는 자식이 있고 나라에 간하는 신하 있고 형제(兄弟) 서로 권하고 붕우(朋友) 서로 책(責)하나니 어찌 부부라고 간쟁(諫諍)치 않으리이까?(㉢)그러 하나 자고로 장부(丈夫) 부인(婦人)의 말을 편청(偏聽)하면 해로움이 있삽고 유익(有益)함이 없으니 어찌 경계 아니 하리이까?”

유 소사가 모든 손님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나의 며느리는 가히 조대가*에 비할 것이니 어찌 시속(時俗) 여자가 미칠 바리오.”(㉣)라고 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에서 —

* 조대가: 『한서(漢書)』를 지은 반고(班固)의 누이동생인 반소(班昭). 학식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왕실 여성의 스승으로 칭송이 자자했다.

- ① 사씨의 어머니는 딸이 남편에게 맞섰던 일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사씨는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③ 사씨는 부부의 예에 따라,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유 소사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 효성이 지극한 사씨의 모습에 흠족해 하고 있다.

문 19. 다음 글에서 추론한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도시화, 산업화,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뒷방
살이 신세로 전락한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①)
농업은 경제적 효율성이 뒤쳐져서 사라져야 할 사양 산업이 아
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와 식량 및 에너지 등 자원 위기에
대응하여 나라와 생명을 살릴 미래 산업으로서 농업의 전략적 가치
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농본주의의 가치를 앞세우고 농업 르네상
스 시대의 재연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불확실성의 터널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농업은 자원 순환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이기 때문이다. 땅의 생산력에 기초해서 한계적 노
동력을 고용하는 지연(地緣) 산업인 동시에 식량과 에너지를 생
산하는 원천적인 생명 산업이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부의 극대
화를 위해서 한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한 뒤에 효용 가치
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적 태도가 오늘날 위
기를 낳고 키워 왔는지 모른다.(②)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
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오늘날의 역사에
동승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넘겨주
는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가 새롭게 조
명 받는 이유에 주목할 만하다.(③)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
과를 수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잠재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④)

- ① 고도성장을 도모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양하였다.
- ②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경제 시스템은 미래 사회를 대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③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에 비해 정주 생활을 하는 민족이 농업의 가치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다.
- ④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효용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과학 기
술의 부작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해설
④글쓴이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문 20. 다음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효(孝)가 개인과 가족, 곧 일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
를 규정한 것이라면, 충(忠)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곧
이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행위를 규정한 것이었
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효를 순응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고 오해하는가 하면(①), 충과 효
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졌다. 다음을 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윗사람의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윗사람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난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다.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확
립되면 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효도와 우애는 인(仁)의 근본이다.”

위 구절에 담긴 입장을 기준으로 보면 효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으로 연결된다. 곧 종족 윤리의 기본이 되는 연장자에 대
한 예우는 물론이고 신분 사회의 엄격한 상하 관계까지 포괄적
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절만을 근거로 효를 복종의
윤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효란
가족 윤리 또는 종족 윤리로서 사회 윤리였던 충보다 우선시되었
을 뿐만 아니라(④), 유교의 기본 입장은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보았기 때문이다.(②, ③)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자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고 본
다. 이에 비해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관계
로서 의리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로 본다. 의리가 맞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① 효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한 일차적 인간관계이다.
- ②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므로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한 덕목
이다.
- ③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유교적 윤리의 한 바
탕이다.**
- ④ 충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인의
이치다.

▶해설
①효가 일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이를 봉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으로 보는 것은 오해라고 말하고 있
다.
②, ③**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말하고 있다.**
④효는 충보다 우선시되었다.